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명제는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② 윤리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학문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 ⑤ 현실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을: 죽고 사는 것은 밤낮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이다. 진인은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의연하게 갔다가 의연하게 돌아올 뿐이다.

- ① 갑: 죽음은 삶과 달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 ② 갑: 인간은 자신의 업(業)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 ③ 을: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
- ④ 을: 도(道)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삶과 죽음은 분별해야 하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다.

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학 발전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만, 그것이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신할 믿을 만한 대안이 없고,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을: 아직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① 동물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개체인가?
- ②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 ③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④ 동물 실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 ⑤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4. (가), (나)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와 신뢰를 확산한 후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나) 남북통일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 체제를 통합해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 체제 단일화는 사회 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가): 통일은 군사적 통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ㄴ. (가): 통일은 남북 간의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ㄷ. (나): 통일을 위해서는 단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ㄹ. (가), (나): 통일 이전에 문화의 이질성을 제거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가진 사람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을: 어떤 사람의 재화에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권이 부여되었다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  
 병: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분배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나)

<범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

<예시>  
 (갑)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C: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됨을 간과한다.
- ② A, F: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 경계가 사라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국가가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E: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C, E: 가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사지[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사례>

고등학교 A는 등교 시간에 늦었지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사랑[兼愛]을 실천하세요.
- ②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性]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③ 순선(純善)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하세요.
- ④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도(道)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세요.

7.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은 본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는 안정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사랑하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을: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은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약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경험이다.

- ① 갑: 성에 대한 책임보다는 성적인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성의 생식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성은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④ 을: 성은 자유로운 활동으로 도덕적 제약 없이 이뤄져야 한다.
- ⑤ 갑, 을: 성은 상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

8.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물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을 표시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자들이 제한된 조건 내에서 대가 없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저작자의 의사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은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① 저작권 보호는 새로운 창작 활동의 기회를 박탈한다.
- ②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정보의 공유는 양립 가능하다.
- ③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공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이용 허락 조건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
- ⑤ 저작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된다.

9. 갑, 을, 병 사상가들 모두가 질문에 옳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형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을: 형벌은 정언 명령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병: 형벌의 목적은 공리의 원칙에 따른 모든 위법 행위 방지, 최악의 위법 행위 방지, 해악 감소, 비용 최소화이다.

	질문	대답		
		갑	을	병
①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실시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②	형벌은 사회적 선을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예
③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예
④	형벌의 목적은 시민들의 범죄 예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1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갑, 을,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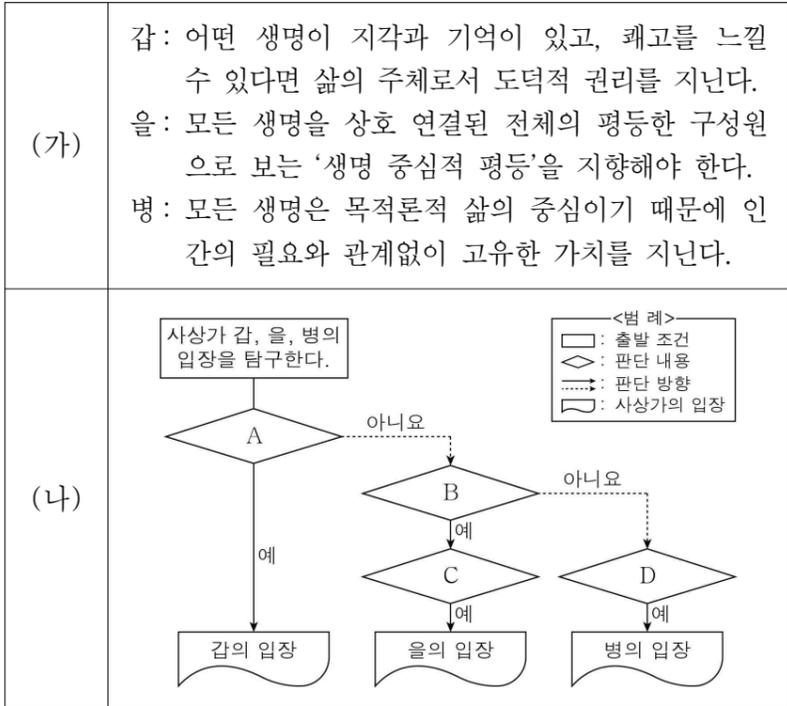
(가)	우리는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원조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	갑: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없다. 우리는 배려자로서 우리 앞의 타자를 먼저 만나야 한다. 을: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를 설립하려는 만민들을 돕는 큰 기획의 한 방편이다. 병: 개인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타인의 고통과 무관하게 절대적 소유 권리를 지닌다.

< 보 기 >

ㄱ. 갑은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ㄴ. 을은 공리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병은 원조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함을 간과한다.  
 ㄹ. 갑, 을은 원조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B: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③ B: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생명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④ C: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가?
- ⑤ D: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 입장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시민의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합당한 저항에 대한 보복적 억압은 없지만 우리 행위가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보 기 > —
- ㄱ.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인가?
  - ㄴ.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 ㄷ.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 ㄹ.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합법적이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선왕은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분별하여 가난하고 부유하고 천하고 귀한 부류가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천하를 기르는 근본이다.
- 사람이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쌓아 농부가 되고, 깎고 다듬는 일을 쌓아 공인이 되며, 재화를 매매하는 일을 쌓아 상인이 되듯이, 예절과 의리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 < 보 기 > —
- ㄱ. 예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직분을 나누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 ㄴ.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이 그 분야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다.
  - ㄷ.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나 통치하는 일을 할 수 있다.
  - ㄹ. 서민의 자손이라도 재능과 덕을 갖추면 관리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 화해를 위해서는 비공식 대화와 공식 대화, 학문적 대화, 일상적 대화 등 모든 차원의 대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종교 간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선한 의지와 개방된 자세뿐만 아니라 연대적 인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를 이끌어 갈 세 가지 기본 명제는 다음과 같다.

- 국가 간 세계 윤리 없이 인간의 공생·공존은 불가능하다.
-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① 대화 역량은 종교 간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 ② 참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만 종교 간 평화가 보장된다.
- ③ 종교 간 평화는 여러 종교의 통합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된다.
- ④ 각자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때 세계 평화가 실현된다.
- ⑤ 각 종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할 필요는 없다.

15.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의 상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을: 예술에서 선한 의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형편없는 예술은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 우아함과 좋은 리듬은 좋은 말씨와 좋은 성품을 닮고, 추함과 나쁜 리듬은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는다.

- ① 갑: 인간의 미적 체험은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을: 진정한 감상자는 아름다운 것에서 도덕적 의미를 찾는다.
- ③ 병: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가치이다.
- ④ 갑, 을: 윤리적인 공감 능력은 예술 작품 창작에 필수적이다.
- ⑤ 갑, 병: 미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것으로 감성과는 무관하다.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공손하되 예(禮)가 없으면 힘이 들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렵게 되고,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정직하되 예가 없으면 각박하게 된다.
(나)	남녀의 구별이 있어야 ㉠의 의(義)가 있고, ㉠의 의가 있어야 부자의 친함이 있고, 부자의 친함이 있어야 군신의 의가 있다. 그러므로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

- ① 서로에게 자애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호혜적 관계이다.
- ②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천륜 관계이다.
- ③ 가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이다.
- ④ 장유의 서열과 친애를 근본으로 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이다.
- ⑤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이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로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가장 친밀한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필요치 않은 강제적 수단이 집단 간의 조화와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제력의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 < 보 기 > —

ㄱ. 집단 이기주의는 집단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ㄴ. 개인의 합리성이 제고되면 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ㄷ.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ㄹ.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도덕, 가치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살인, 빈곤, 억압, 소외, 착취 등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향할 때에만 가능하다.

- ① 직접적 폭력과 달리 문화적 폭력은 제거할 수 없다.
- ②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 ③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제거로 완전히 실현된다.
- ④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
- ⑤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들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는 진리의 발견이라는 자신의 일이 바깥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학자에게는 자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인 엄밀성을 추구할 내적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력과 책임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② 과학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지녀야 한다.
- ③ 과학자는 실험 진행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관찰자이어야 한다.
- ④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할 때 연구 윤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 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담론이 필요하다. 나는 담론에 참여한 자들이 합의를 지향하며 그들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이라 부른다. 이때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타당성 주장들, 즉 진리 주장, 정당성 주장 및 진실성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담론의 모든 참여자는 서로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해야 한다.  
ㄴ.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ㄷ. 담론의 참여자들은 논의에서 합의된 보편적 규범의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  
ㄹ.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